

濟州島研究 제14집(1997), pp. 157~192

濟州 神話에 나타난 共存과 사랑의 原理 : 그리스 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 영 수¹⁾

요 약

신화는 민족의 집단 무의식의 표출이라는 견지에서 제주도 신화와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공존과 사랑의 원리를 비교 분석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대립적인 성격의 신화 주인공들은 인간성에 내재하는 대립적인 요소들을 대표한다고 볼 때, 이들 대립적인 신화 주인공들이 서로 어떤 성질의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인간관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공존의 원리상에서 두 신화에 나타나는 뚜렷한 차이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대립적인 신화 주인공들의 관계를 투쟁 모티프로 설명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제주도 신화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평화 모티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의 신과 엑스타시의 신은 대립적인 성격의 신들인데, 그리스 신화에서의 이성의 신 아폴로와 광기의 신 디오니수스는 동시에 한 자리에서 인간의 숭배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호 배척적이다. 디오니수스는 또한, 신의 위치로 격상되기까지는 상식적 합리적인 세계와의 사이에서 무수한 살상과 충돌을 겪어야만 되었다. 제주 신화에서 디오니수스에 해당되는 갯부기 3형제는 엑스타시적 請神術士인 초공신으로 좌정할 때가

1) 제주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교수

지 합리적 질서세계와 충돌됨이 없이 과거용시 준비에 열심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巫俗神 중에서 비중있는 위치에 있는 門前神은 제사 명절 때에 유교적인 조상신과 같은 자리에서 경배되고 있고, 제주도 본향당 중에서 가장 컸다는 광양당은 한 때 조상신 격인 제주 三姓神도 함께 모시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잔인한 권력투쟁을 거친 다음에 제우스신 등 지배신의 자리가 확보됨에 반하여, 제주 신화에서의 대별왕과 소별왕은 평화로운 방법인 수수께끼나 꽃가꾸기 시험을 통하여 이승과 저승의 지배권을 나누어 갖는다. 삼성신화에서도 삼올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날린 화살이 떨어진 곳에 따라 지배영역을 안배하고 있다. 죽음을 다스리는 신들에게서도 투쟁과 평화의 모티프가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에게 죽을 운명을 내리는 신들이 무섭고 잔혹하다는 인상만이 두드러지는데, 제주 신화에서는 죽음의 신들도 인간의 극진한 치성에 감동하는 다정한 면을 보여준다. 신들이 부부관계를 조정함에 있어서도, 그리스 신화에서는 결혼수호신인 헤라 여신이 남편의 婚外情事 대상자들을 무자비하게 응징함에 반하여, 제주 신화에서는 본부인과 첩들이 평화로운 공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인간의 운명을 관장함에 있어서 제주 신화의 삼공신이 인과응보의 합리적 결정과 우연성의 비합리적 결정 모두를 맡고 있는 것은 이들 두 가지 성격의 운명을 구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는, 인과응보의 운명은 아폴로가 맡고, 우연성의 운명은 운명의 3여신이 맡고 있는데, 이렇게 운명의 두 가지 성격을 분석적 배타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투쟁 모티프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신에 대한 관념에서도 그리스 신화는 분석적인 반면에 제주 신화는 종합적이다. 즉, 제주 신화에서는 자칭비라는 하나의 신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랑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그리스 신화에서는 여러 주인공들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랑의 원리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성간의 본능적인 애욕의 원리는 아프로디테에게서,

독신녀들 사이의 순결한 사랑은 아르테미스에게서, 이성간의 정신적인 사랑은 프시케(Psyche)에게서 구현되고 있고, 성적인 의미를 떠난 사랑에 있어서도 자식에 대한 모성애의 원리는 데메테르(Demeter)에게서 나타나며, 죽음과 부활의 순환에 작용하는 사랑의 원리는 페르세포네(Persephone)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자청비가 구현하는 사랑의 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대립되는 성격의 여러 신들에 의해 대표되는 이질적인 사랑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동일한 주인공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별다른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 신화에 나타난 사랑의 원리가 평화적 공존의 원리를 구현시키는 한 방법임을 확인케 된다.

I. 서론

신화를 흔히 집단 무의식의 표현 또는 민족적인 우주해석의 원형이라고 말한다. 민족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기질 같은 것이 신화 속에 나타나 있다는 말이다. 우리 제주도에는 이러한 집단적 사고방식의 원형으로서의 신화가 전승되고 있다. 제주 신화는 주로 굿판에서 심방들에 의해 음송되는 무속신화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주민 전체의 집단 무의식의 표현으로서의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에, 제주도 신화는 유교사상이나 집권층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 소실되지 않고 민간에 전승되어 온 자연발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본래의 신화적인 성격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 방면 연구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제주도 주민의 집단적 사고방식의 원형을 제주 신화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이 글은 비교신화학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 비교 대상은 그리스 신화로 잡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우선 그리스 신화는 그 풍부한 내용과 심오한 의미구조로 인하여 세계의 신화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제주 신화와 비교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그리스 신화는 기독교 사상과 더불어 서양정신의 양대 연원이 되어 온 헬레니즘적 휴머니즘 사상의 원형적 표현인 바, 서양정신을 올바르게 이해 수용하고 이에 대처하는 건전한 동양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현시점에서 제주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비교 연구는, 제주정신을 서양정신에 비추어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인간사회의 내부 또는 인간성의 내부에 존재하기 마련인 이질적인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원리위에서 공존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집단과 개인성격의 통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이러한 중대 관심사가 제주 신화와 그리스 신화에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이 글의 착상이 시작되었다. 사회와 인간성 내부의 이질적인 구성요소들 사이에서 그 이익과 취향의 상이성을 조절 통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회집단이나 개인의 구조적 특성이 크게 결정된다는 생각이다. 흔히 서양사회의 이익 조절방법은 투쟁적임에 반하여, 동양사회의 이익 조절방법은 평화적이라는 말을 듣는 바, 이질적인 구성요소들이 공존하는 방식의 이러한 동서양간 차이가 제주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비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실제의 연구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필자는 개인간의 사랑의 원리도 공존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 마디로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존재하며, 이들 여러 종류의 사랑은 그 대상의 성격과 진행과정의 속성과 목표하는 충족상태의 특성 등은 매우 다를 수가 있고, 이들 이질적인 사랑이 하나의 개인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공존의 원리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도 제주 신화에서는 이질적인 사랑의 종류들 사이에 별다른 충돌이 없는 반면에 그리스 신화에서는 정면적인 충돌 양상이 나타남으로써 평화적 공존과 투쟁적 공존이라는 두 신화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에서는 우선 두 신화에 나타난 이질적인 세력들간의 공존방식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파생적 방식으로서의 사랑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共存의 原理

여러 신들에게 분장된 다양한 직능들을 그 상호관계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제주도 신화와 그리스 신화는 인간성에 내재하는 대립적인 요소들의 공존양상에 있어서 뚜렷이 다른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는 인간성을 구성하는 대립적인 요소들간의 관계가 상호투쟁적이고 배척적임에 반하여, 제주 신화에 있어서는 인간성 내부의 대립적인 요소들간에 평화로운 공존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신화 속에서 다양한 성격의 주인공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 신화 주인

공들 사이가 투쟁적 관계인 것이 그리스 신화이고, 화평적 관계인 것이 제주도 신화라는 것이다. 인간이 지니는 추상적인 속성이나 능력의 구체적인 화신이 신화의 주인공이라 할 때, 이들 주인공들이 신화 속의 사건전개 과정에서 어떤 공존관계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그 신화를 산출한 문화권의 인간관을 추정 이해함에 있어서 의미있는 시사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대립 요소들간의 관계가 평화적이냐 투쟁적이냐 하는 문제를 삶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서부터 찾아보자. 제주 신화의 <맹감 본풀이>에서는 죽기로 예정된 사람을 데리러 온 저승차사까지도 인간세상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는 마음을 돌려서 죽을 시한을 바꾸어 주고 있다. 또한, <차사 본풀이>에서는 천하장사 강님이 죽은 이의 영혼을 데려가는 이승차사로 간택되는 과정에서도 저승세계의 이미지는 인간에게 퍽 다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뜻심좋은 강님이 김치 원님의 청대로 염라대왕을 잡아다가 과양생 아들 삼형제 - 전생의 버무왕 아들들 - 의 비명횡사 신원처리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그를 적대시하던 무서운 염라대왕이 나중에는 그를 이승길로 인도하고 과양생 부부의 악업을 용징해주는 우호적인 협조태도를 보여준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 신화에서 염라대왕에 해당되는 하데스는 염라대왕처럼 인간에게 우호적이기는 커녕 눈뜨고 얼굴을 마주하지도 못하는 공포와 전율의 대상이고, 하데스가 보낸 죽음의 사자(Thanatos, Death)에게서도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민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해진 인간으로부터 결사적인 반항을 일으킴으로써 그리스적인 투쟁 모티프를 구현하게 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코린스 왕 시지푸스(Sisyphus)는 자기를 잡아가려고 찾아온 죽음의 사자를 밧줄로 결박해 놓고 전쟁신 아레스가 와서 끌어갈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하세

계로 내려갔을 때에는 끝없이 바윗돌을 굴러올려야 되는 모진 형벌을 받게 된다. 또한,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는 테살리의 기특한 왕비 알케스테스(Alcestis)를 데리러 온 죽음의 사자를 때려눕히는 의협심을 발휘하고 있다.

제주 신화와 그리스 신화 사이에 존재하는 공존원리의 상이 함은 부부간 애정의 양상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제주 신화의 <문전 본풀이>에서 남선비의 아내인 여산부인이, 자기 남편을 유혹하여 몰락케 만든 노일자대 여인을 찾아냈을 때 원수같은 이 여자를 물리쳐 버리지 않고 집으로 함께 가서 살자는 남편의 청원을 들어주는 대목에서 대립 요소들간의 평화공존 원리가 구현되고 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산부인은 노일자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익사하게 됨으로써 두 여인간의 평화공존 관계는 깨어지지만, <문전 본풀이>의 결말에는 이들 대립하는 성격의 두 여자가 각각 조왕신과 측간신이 되어서, 비록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나마, 동일한 가정의 유지에 공동참여케 되어 제한된 의미의 평화공존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차사 본풀이>에서도, 비록 중심 모티프로서는 아니지만, 한 남편의 정실 부인과 첩들 사이에 평화적인 공존관계가 성립되는 예를 볼 수 있다. 즉, 천하장사 강님의 부인은 남편이 열 여덟 각시를 거느리고 놀다가 저승나들이 부역을 가게 될 때, 오랫동안 남편 사랑을 뺏아갔던 첩들과 불화하는 일 없이 그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고 있다.

제주도의 堂神話는 일반 신화보다도 이 지역 주민들 특유의 풍속을 많이 함축하고 있는데, 제주도 당신화의 宗主的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松堂系神話에는 妻妾間의 평화적 공존이 더욱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松堂 당신화의 父神 소로소천국은 母神 백जू도에게 이혼당하고 첩을 얻어 살게 되지만 나중

에는 이들의 삼각관계가 기정 사실로 인정이 되어 父神은 알손당(下松堂)에, 母神은 옷손당에 들어가 각각 堂神으로 정좌한다. 또한 이들의 子神인 궤궤깃한집은 龍王國 末女를 부인으로 맞아 아들였다가 그녀의 부정타는 행위를 닮하여 마라도로 귀양보내고 첩을 얻지만, 이 첩은 나중에 전부인을 모셔다가 남편하고 셋이서 동거하고 있다.²⁾

이와는 달리, 그리스 신화에서는 혼외정사를 막고 결혼의 순결성을 수호하는 문제를 두고 끝없는 반목과 살상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이 주의를 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정과 혼인의 수호신은 제우스신의 아내인 헤라이다. 헤라 여신은 남편과의 부정한 관계가 드러나는 여자에게 대해서는, 그 상대가 신이든 인간이든 가차없는 응징을 가한다. 헤라는 레토여신이 제우스신과 사랑을 나눈 일을 질투하여 그들 사이에서 생긴 아기신이 태어나려 할 때 <태양이 보이는 곳에서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도록 그리스 전역에 비상명령을 발포하기에 이르지만, 이를 가엾게 여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에에게해상의 델로스섬에 높은 파도를 일으켜 태양빛을 가리게 함으로써 비로소 아폴로와 아르테미스가 태어나는 일이 가능해진다. 헤라는, 이오(Io) 여신이 제우스와 사랑한 일에 대해서는 이 여신을 이오니아해를 거쳐 이집트로 쫓아버림으로써 복수한다. 헤라는 또 자기 남편이 세멜레(Semele) 여인과 통정한 일에 대해서는 간교한 피로써 제우스의 천둥벼락을 끌어들이도록 유도하여 복수하고, 칼리스토 여인과의 통정에 대해서는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힘을 끌어들이며 복수하는데 이 여자들은 불멸의 여신이 아니었기에 복수의 방법은 가차없는 죽음이었다.

2)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집문당 1992), p. 173 참조.

제주 신화와 그리스 신화는, 엑스타시 신들이 다른 이질적인 주인공들과 가지는 관계에 있어서도 상이한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 무속신화 가운데에서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수스에 해당되는 엑스타시 신을 찾는다면 <초공 본풀이>에 나오는 巫祖神인 초공신 삼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존원리의 상이성을 보기 전에 먼저 이들 두 엑스타시 신들이 갖는 유사한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디오니수스 축제에서 술취한 酒神의 사제들이 자기 도취의 열광 가운데에 경험하는 비일상적이고 망아적인 몽환상태는 제주도의 巫俗儀禮중에서 심방들이 춤과 노래로써 신을 불러 들여 초인간적인 힘과의 靈交속에서 체험하는 入神狀態와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체험은 모두 일종의 엑스타시 상태로서, 상식적 혹은 합리적인 삶의 수준을 뛰어넘는 신비적인 체험이고, 인간성의 요소들 가운데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신령적인 힘이 잠재해 있음을 시사해 주는 징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체험에서 공통되는 것은, 춤과 음악 등 예술적 방법에 의해 인간의 정서상태를 격양시키고 신비적인 영감과 상상력을 고조시킴으로써 평범한 상식세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초능력의 발휘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디오니수스와 초공신은 신비적인 초능력의 신들답게 신비롭고 기이한 방식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흥미롭다. 디오니수스의 어머니인 테에베 왕 카드무스의 딸 세멜레는 헤라여신의 간교한 부추김을 받은 끝에,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모습의 제우스신에게 변신하지 않은 본래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다가 천둥벼락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최고신의 위력때문에 불에 타 죽어버리고, 이 때 세멜레의 몸에 잉태되어 있던 디오니수스는 제우스신이 재빨리 거두어다가 달이 차서 태어날 때까지 넘적다리

안에서 키워주었으며, 제우스신은 이 불행한 아들을 질투 많은 헤라여신의 꾀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멀리 소아시아의 이오니아지방으로 보내어 숨어 자라도록 했다는 것이다.

광기의 신 디오니수스는 이성의 신 아폴로와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들 두 신은 그 출신성분에 있어서도 매우 대조적이다. 이성의 신 아폴로는 최고신 제우스와 레토 여신의 태생이니 애초부터 신이 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갖고 있었고 그리하여 그리스 신화의 중심무대인 올림푸스(Olympus)산과 파나수스(Parnassus)산의 영봉을 주요 활동무대로 삼고 있었음에 비해, 광기의 신 디오니수스의 태생은 한쪽으로는 제우스신을 아버지로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세멜레를 어머니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올림푸스 12신의 반열에 끼일 수 없는 신분이었고, 태양의 신과는 달리 이오니아지방의 니사(Nysa)山中에 있는 음습한 계곡이 그의 고향이다.

제주 신화에서의 엑스타시 신인 초공신도 그 비천한 신분과 기이한 잉태 및 출생 방식에 있어서 디오니수스와 유사하다. 우선, 초공신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불교 승려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점이, 디오니수스가 다른 올림픽 주신들과는 달리 인간을 어머니로 하고 있음과 유사하다. 초공신은 또한 기이한 출생의 방식에 있어서도 디오니수스와 유사하다. 초공신 삼형제의 어머니인 주지맹왕 아기씨가 이들을 잉태하게 된 것은, 자기 부모의 부재중에 보시 받으러 온 황금산 도단땅의 스님 주자선생에게 보시 전대에 쌀을 부을 때 이 스님이 “소맷자락 속의 손을 꺼내어 아기씨 머리를 세 번 쓸어” 줌으로써 이루어졌고,³⁾ 이들을

3) 현용준, 『濟州島 神話』(瑞文堂 서문문고 219호, 1976), p. 43 *이 논문에서 제주신화의 내용을 典據를 대지 않고 面 표시만 하여 인용

분만할 때에도, “어머님의 아래쪽으로 나오고 싶되, 아버님도 아니 보았던 길이라 거기로 나올 수가 없어서,” 큰 아들과 둘째아들은 각각 어머니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왼쪽 겨드랑이를 허위뜯어 솟아났고, 막내아들은 “어머님의 애달픈 가슴을 허위 뜯어 솟아나왔다(p. 51).”

출생 신분과 방식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초공신과 디오니수스는 주변의 이질적인 주인공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는 상호배척적인 관계를, 다른 하나는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엑스타시 본능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디오니수스는 수많은 주변 인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무수한 살상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엑스타시적인 광기가 이성적인 질서와 만날 때 생기는 충돌현상이라고 해석되며, 광기의 신 디오니수스는 이성의 신 아폴로와는 동시적인 숭배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됨으로써 그리스 신화의 투쟁 모티프를 구현한다고 보아진다. 그리스인들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이성의 신과 광기의 신을 숭배했던 교묘한 방법은 그들이 인생의 상극적인 두 가지 요소를 결합, 공존시키는 독특한 방법을 암시하는 것 같다. 즉, 그리스인들은 델피(Delphi)의 아폴로 신전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태양신 아폴로와 酒神 디오니수스를 함께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디오니수스를 숭배하는 기간인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에는 아폴로가 북쪽 지방으로 연례적인 출장 여행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성과 광기의 공존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리스 신화의 투쟁 모티프는, 디오니수스가 아폴로 아닌 다른 신이

나 인간들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디오니수스는 가정수호신인 헤라의 박해를 받아서 그리스에서 멀리 떨어진 니사산 기슭에 숨겨져, 제우스의 당부를 받은 요정들이 비밀리에 양육해 준다. 디오니수스가 성장하면서 보여준 괴이한 행적은 일반인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인 공인을 받지 못한 그는 반항과 복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낙소스(Naxos)로 가는 배에서 사람들에게 회롱당하자 돛대위에 포도덩쿨을 덮치게 하고 선원들을 순식간에 돌고래로 만들어버리는 일도 생긴다. 디오니수스가 자신이 터득한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 양조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기에 그 숭배자들이 광란의 환락에 탐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테에베왕 펜테우스(Pentheus)는 그를 잡아들이려 하나, 열광적인 酒神 숭배자들이 오히려 이 이해성없는 왕을 죽이고 만다. 스테이스지방(Thrace) 에도니아족의 왕인 리쿠르구스(Lycurgus)는 디오니수스와 그 숭배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광기가 들어 가족들을 죽이게 되고 농토의 흉작을 면치 못하게 된다. 오랫동안 위정자들의 천대를 받으면서 정처없이 유랑하던 디오니수스가 올림푸스 12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그가 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적을 행사함으로써 술의 힘이란 위험하고 파괴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풍요한 생산력을 베풀 수도 있음을 증명해 보인 다음이었다. 디오니수스를 찬양하는 포도 수확의 축제에 등장했던 歌舞演戲가 그리스 연극의 찬란한 발달로 이어지면서 이 광기의 신에 함축된 인간학적인 의의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초공 본풀이>에서 무조신으로 간택되게 되는 주자선생의 세 쌍둥이는, 엑스타시 신의 본령인 비합리적 초능력 요소를 발휘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상식적인 도덕질서의 원리에 따르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다른 신화 주인공들과의 관계가 그리스 신

화의 대응자인 디오니수스에서와는 달리 평화적일 수가 있다. 이들은 중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법당 선비들에게서 모진 학대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근면 성실한 생활태도와 열성적인 글공부를 통하여 상식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우수한 적응력을 보여 준다. 초공신 삼형제가 서당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글공부할 때 모범학생같이 노력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삼형제는 부지런히 많은 일을 하며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다. 종이나 붓이 있을 리 없다. 온돌 아궁이의 재를 모아 놓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공부해 갔다. 글공부는 일취월장하여 서당안에서 글도 장원, 활도 장원이 되어 갔다. 삼천 선비들은 삼형제를 「잿부기 삼형제」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재 위에서 공부했기 때문이다.(p. 52)

이들 삼형제가 떠돌이 중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삼천 선비들에게 기만을 당하고 장원급제 권리를 빼긴 것은 사회제도상의 부조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들 자신이 갖는 사회 부적응적인 특성 때문은 아니었다. 이들은 글공부하고 과거보러 가는 동안에 자기네를 구박하는 양반 선비들에게 놀림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견딘다. <초공 본풀이> 끝 부분에 와서 잿부기 삼형제는 <동해 바다 쇠철이 아들>의 도움으로 <일흔 다섯 자 되는 칼>을 만들어다가 어머니 죽인 원수들인 삼천 선비들 모가지를 자르고 마는데(p. 61), 이러한 복수행위를 양반 자식들의 악행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고 본다면, 이성적인 상식세계에 도전하는 狂氣의 神 디오니수스의 투쟁적 행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아진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과거응시의 방법으로 입신출세하려고 하던 잿부기 삼형제는 불평등한 사회제도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 궁지에 처하고 나서야 상식세계 아닌 곳에서 자신들의 살아갈 다른 길을 찾는다. <전생 팔자를 그려쳐야 한다>는 아버지 주자선생의 가르침을 들은 이들은 이 때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나서는데, 이들이 신비로운 초능력을 보여주면서 엑스타시 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이 때부터이다. 오동나무와 말가죽으로 복과 장고를 만들어 三天天帝釋宮으로 달려가서 열 나흘 동안 맹렬시위한 끝에 거기에 갇혔던 어머니를 풀려나오게 하고, 요령과 천문, 상잔, 신칼등 무당 점구들을 만들어 신령세계를 넘나드는 무조신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p. 62).

제주도 주민들이 상이한 성격인 巫敎的인 신과 儒敎的인 신을 숭배하는 풍속에 있어서도 그리스와는 달리 평화적 공존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요즘도 제사 명절 때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날 같은 자리에서 巫敎의 신인 門前神에 대해 <門祭>라는 숭배의식을 행한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탐라국의 조상신 숭배 사당인 삼성혈은 애초에는 本鄕堂인 光壤堂의 堂神을 숭배하던 곳이고 한 때는 이질적인 성격의 조상신과 당신이 여기에서 함께 봉안되기도 했다고 한다.⁴⁾ 즉, 광양당의 당굿과 삼성혈에서의 제의는 굿과 제사의 형태로 공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도내 다수의 마을에서 두 형식의 마을 공동체아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면 납득이 가는 일이다.

우리는 위에서, 인간성의 대립적인 요소를 대표하는 대립적인 신화 주인공들이 어떠한 공존원리에 따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주 신화와 그리스 신화를 비교해 보았다. 그러

4) 고대경, 『神들의 故鄕』 (도서출판 증명 1977), p. 50

나, 인간성의 대립적인 요소들이 신화 속에서 반드시 대립적인 주인공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제주도 무속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즉, 그리스 신화에서는 대립적인 주인공들의 성격을 통해서 삶의 대립적인 요소들이 묘사되는 국면이 많은 반면에, 제주도 신화에 있어서는 그러한 대립적인 요소들이 동일한 주인공의 성격 안에 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선 운명신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그리스 신화의 경우에는 인과율적인 운명의 신과 우연적인 운명의 신이 따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제주 신화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별이 없이 동일한 운명신이 여러 가지 성격의 운명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성의 신 아폴로는 신탁과 관련된 신들 및 인간의 운명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음악과 의술과 궁술을 관장한다. 동일한 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직능을 맡게 된 것은, 일견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 여러 가지 직능들이 사실은 동일한 삶의 원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폴로는 원래 태양의 신인데, 태양의 광명을 내려주는 신이 미지의 세계를 투명한 이성에 의해 밝게 비춰주는 학문과 신탁을 관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성능력의 올바른 활용은 사물의 이상적 상태로서의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게 되므로 이 이성의 신은 자연의 아름다움의 표현 방법으로서의 시와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으며, 태양신으로 시작된 아폴로의 직능이 나중에 의술 및 궁술의 신으로 확대된 것은 이러한 秘術들은 자연법칙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만 터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의 신 아폴로에게는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질서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관련되는 운명은 도덕적인 인과율로 설명할 수 있는 부류의 것이며, 운수가 나쁜 탓이라고 밖에

는 그것이 일어난 까닭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맡고 있는 것은 운명의 3여신(The Three Fates)이다.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의 옆자리에 앉은 운명의 3여신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선악행위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일고의 동정도 없이 인간의 운명의 실타래를 돌리고 재고 자르는(spinning, measuring, and cutting the thread of life) 냉혹한 신들이다. 테살리 지방의 왕 아드메투스(Admetus)의 죽음에 관련된 일화는 아폴로와 3자매신의 상이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아폴로는 아드메투스가 쌓은 선행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대신으로 죽을 사람이 나선다는 조건아래 그의 수명을 얼마간 늘려주려고 하지만 3자매신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술에 취하게 만듦으로써 인과응보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운명의 3여신이 보여주는 준엄하고도 무자비한 성격이 아폴로의 선량한 의지와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제주 신화에서의 운명신은 전상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삼공신이다. 강이영성이서불의 막내딸로 태어난 가문장아기가 나중에 삼공신으로 정좌하기까지 보여주는 운명결정의 논리는 도덕적인과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강이영성의 큰 딸 은장아기와 둘째 딸 늦장아기가 막내 동생을 냉대한 결과 각각 청지네와 버섯몸으로 환생하는 것은 분명히 도덕적인 보상의 논리이다. 가문장아기가 허허벌판을 헤메다가 날이 어두어져 마통이네 집에서 하룻 밤을 묵을 때에 셋째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낮선 이를 환대해준 결과 큰 복을 받는다는 내용도 도덕적인 보상의 논리이다. 그러나, 가문장아기 자신이 강이영성 집안에 복을 불러오는 내력에서는 도덕적인 선행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다분히 전생

의 인연을 연상케 할 뿐이다. 이같이 도덕적인 보상의 논리를 떠난 운명의 전개는, <누구 덕에 먹고 입고 행위발신하느냐>는 부모의 질문에 대해 부모 덕보다는 <나 배또롱 아래 선그릇 덕으로> 살아간다는 가문장아기 자신의 대답으로 확인되고 있다 (p. 79).

그리스 신화에서 운명의 힘의 관장이 이성적인(또는 도덕적인) 성격의 신과 비이성적인(또는 비도덕적인) 성격의 신에 의해 양분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발상법의 차이이기보다는 신화적인 스토리 세련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 신화도 더 방대한 내용으로 커졌더라면 운명의 신의 분화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신화의 유산을 놓고 보건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운명이라고 생각되는 인생사 결정의 힘도 이성적인 힘과 비이성적인 힘이 서로 강약을 겨루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에, 제주도 신화에서는 이러한 대립적인 힘들이 서로 투쟁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제주 신화에서 동일한 운명의 신 속에 도덕적인 보상의 관념과 우연적인 운수의 관념이 두루뭉실하게 녹아있다는 것은 운명의 힘에 내재하는 상이한 요소들을 동질적인 차원의 것으로 불려고 하거나 적어도 서로 투쟁적으로 될 만큼 이질적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려는 제주도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제주 사람들이 운명을 보는 안목은 매우 포괄적 종합적인 것이어서 그 속에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리스 사람들의 분석적인 안목은 운명의 힘의 원리를 대립적인 두 가지 것으로 분리하여 보기 때문에 신화 주인공들의 설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생겨난 것으로 생각될지 하다.

공존의 원리는, 권력의 획득과 분배 방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 신화에서 지배신으로서의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은 아들神에 의한 父神의 축출이고, 그 축출 방법 또한 무자비한 폭력수단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제주 신화에서 천지왕의 큰 아들 대별왕과 작은 아들 소별왕이 벌이는 인간세계 지배권 쟁탈은 수수께끼 맞추기나 꽃가꾸기 시합이라는 지극히 평화로운 방법을 쓰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제주도의 삼성신화에 나오는 三乙那의 활쏘기 장면이다. 땅에서 湧出한 三神人은 일본국에서 보낸 靑衣의 處女 三人을 만난 후에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었다(三人以歲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라고 하는 것은 (p. 23) 제주 신화의 평화적 공존의 원리를 구현한다고 보아진다. 화살이 경쟁상대에게 향하도록 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질 땅을 향하도록 쏘는 것도 평화적이지만, 누가 더 잘 쏘느냐 하는 우열의 경쟁이 아니라 화살이 떨어진 위치에 따라 땅 분배의 경계선을 정한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없는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제주도 신화에서 지배권력의 승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예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주의 지배권력이 先代의 죽음을 계기로 後代에게 승계되는 이치는 불가피한 것이나, 제주섬의 창조자인 설문대할망에게서 그 아들들에게로 지배권력이 승계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아들神에 의한 폭력적 반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문대할망이 50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먹여 살릴 죽을 쏘다가 가마솥전에 발을 헛디딘 결과로 뜨거운 죽솥에 빠져 죽음으로써 아들들이 유난히 맛있는 죽을 먹게 된다는 내용 가운데에는 폭력

수단의 사용도 없고 상호간의 배척이나 미움도 없으며, 오직 先代의 희생에 의한 後代의 양육이라는 평화적인 승계 원리가 돋보일 뿐이다.⁵⁾

Ⅲ. 사랑의 原理

운명의 신에 대한 관념이 종합적이냐 분석적이냐 하는 쟁점은 사랑의 신에 대한 관념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제주 신화에서는 하나의 신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랑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그리스 신화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의 주인공 안에서 통합되지 않고 여러 주인공으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제주 신화에서 흔히 農耕神으로 알려져 있는 자청비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랑의 신이라고 볼 수 있다. 자청비가 <세경 본풀이>의 끝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농경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는 것을, 이 여신의 그 때까지의 행동방식에서 나타났던 인간애의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농경신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있기까지 자청비의 언행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은 남녀간의 사랑의 원리를 보여줌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다. 그러니까 자청비는 도덕적이고 박애주의적인 사랑과 남녀간의 性愛的인 사랑의 원리를 모두 구현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원리를 구현하는 신들은 매우 많다. 편의상 여성적인 사랑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도

5) 고대경, pp. 37-8

그렇다. 이성간의 본능적인 애욕의 원리는 아프로디테에게서 구현되고 있고, 독신녀들 사이의 순결한 사랑은 아르테미스에게서 구현되며, 이성간의 정신적인 사랑은 프시케(Psyche)에게서 구현되고 있다. 물론 그리스 신화의 사랑 모티프는 성적인 의미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어서, 자식에 대한 모성애의 원리는 데메테르(Demeter)에게서 나타나며, 죽음과 부활의 순환에 작용하는 사랑의 원리는 페르세포네(Persephone)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사냥신이면서 처녀성 수호신인 아르테미스가 구현하는 사랑은 동성애적인 것이다. 이 여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냥으로 보내지만 사냥할 때의 파트너는 오빠인 아폴로나 숲 속의 요정들이고, 아르테미스는 그 요정들에게 처녀성을 지킬 것을 강요한다. 제우스신에게 몸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이 순결의 여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요정들이 많이 있다. 아르테미스는 또한 자신을 사랑하려고 덤비는 무모한 남자들을 살상하거나 짐승으로 변신시켜 버린다. 海神 포세이돈의 아들인 오리온(Orion)은 아르테미스를 겁탈하려다가 죽음을 당하여 북쪽 하늘 정해진 자리에 무서운 전갈과 나란히 붙박혀 오리온座 별자리가 되고 만다. 미모의 양치는 소년 엔디미온(Endymion)의 잠자는 얼굴이 이 여신을 매혹시키기도 하지만, 달의 여신이기도 한 아르테미스는 밤마다 찾아와 소년의 잠든 얼굴을 달빛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끝내고 있다.

이 순결의 여신은 명예욕과 자존심이 유달리 강하다는 성격 설정도 순결주의 독신녀의 심리 특성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롭다. 이 여신은 독신녀로서의 자신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자에게는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 만다. 아르테미스는 어느 날 사냥으로 지친 몸을 쉬면서 숲속 연못에 들어가 목욕을 하다가 우연히 그 가까이에 있던 악테온(Actaeon)이라는 사내가 자신의 알몸

을 엿보는 것을 알자 분개한 나머지 그 무엄한 사내를 사슴으로 만들어 버린다. 자신의 궁술에 따를 자가 없다고 믿는 아르테미스는 미케네왕 아가멤논이 활숨씨 자랑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그가 지휘하는 트로이 원정군 함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람을 막는데, 궁지에 몰린 아가멤논이 자신의 큰 딸을 희생으로 바쳐야 비로소 여신의 화가 풀리게 된다.

순결성 수호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있는 아르테미스와 자유분방한 연애를 즐기는 아프로디테가 화목하지 못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여신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상대편 숭배자들까지도 서로 미워한다.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저주하는 것은 이성간의 사랑에 빠지는 행위이고, 애욕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저주하는 것은 사랑의 욕망을 보이지 않는 행위이다. 대표적인 예가 아테네왕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투스(Hippolytus)의 경우이다. 이 미남 소년은 순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사는데, 이 여신이 구사한 복수의 방법은 애욕의 여신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그의 나이 젊은 계모 파에드라(Phaedra)로 하여금 이 의붓아들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다. 히폴리투스에 대한 구애가 거절당했다는 수치심을 못 이긴 파에드라는 목매어 자살하면서 죄없는 의붓아들에게 계모 겁탈의 누명을 씌워버림으로써 테세우스왕에 의해 아들까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모든 비극들은 아프로디테의 분풀이라는 것이다.

애욕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사랑은 연애지상주의자의 것이어서 도덕적인 자기통제가 없다. 이 여신은 자기 남편 헤파에스투스가 추남이고, 절름발이인데다가 달콤한 사랑의 맛을 모르는 멧 없는 남성이라고 경멸하면서 수많은 남성 신들과 인간을 상대로 질탕한 혼외정사를 즐긴다. 아프로디테가 벌이는 현란한

연애행각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것은 戰爭神 아레스와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男便神 헤파에스투스가 올림푸스산을 떠나는 날 밤마다 찾아오는 이 전쟁신과 애욕의 여신 사이의 정사를 太陽神 아폴로가 일러 바침으로써 여신은 큰 곤욕을 치른다. 헤파에스투스는 자신의 工作術을 십분 발휘하여 만든, 눈에 안 보이는 밧줄을 가지고 정사중인 두 신을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어 놓고 올림푸스의 여러 신들을 불러다가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에로스(Eros) 또한 어머니처럼 연애대상 주의자여서 이들 母子神이 만드는 술한 연애사건들은 그리스 신화에 내장되어 있는 인간 해석의 고급 비밀들 중에서도 압권에 속한다. 이들이 일으키는 무절제한 연애사건들 중에는, 콜키스(Colchis) 공주 메데아(Medea)로 하여금 아르고 탐험대(Argonauts)의 영웅 이아손(Jason)을 사랑하게 만듦으로써 처참을 극하는 복수의 비극을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사건들도 일으키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에로스와 프시케 사이의 사랑에 관련된 일들이다. 영혼의 權化인 프시케가 에로스와의 사랑을 통하여 남녀간의 정신적인 사랑이 지니는 인간정화적인 힘을 보여주게 되는 내력도 애초에는 질투심 많은 아프로디테의 심술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아프로디테는, 인간인 프시케의 미모가 자기보다도 더 많은 찬미를 받고 있음을 알자 아들 에로스에게 복수해 줄 것을 당부하지만, 잠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에로스는 사랑의 화살을 잘 못 건드려서 프시케와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이들간에 운명적인 사랑의 역사가 시작된다. 西風의 신 제피르(Zephyr)를 시켜 프시케를 산속의 성으로 데려온 에로스가 어두운 밤에만 그녀와 동침하기를 고집하는 것은 상대방의 정체

를 모르고서라야 무조건적 사랑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프시케는 자신의 호기심과 자매들의 모함때문에 잠자는 남편의 얼굴을 훔쳐 보려고 하다가 램프 기름을 떨어뜨려 그의 잠을 깨우고 마는데, 사랑의 배신감을 안고 떠나버린 에로스를 찾아서 사방을 헤매이는 프시케의 애절한 모습에 감동한 아프로디테가 그녀에게 에로스의 사랑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세 가지 어려운 시험을 차례로 부과하지만, 진정어린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 신들의 도움을 얻어 낸 프시케는 결국 이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사랑하는 남편을 되찾게 되고 자기 자신도 여신의 신분으로 격상된다.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지는 프시케와 에로스의 결합은 사랑을 성취하는 정신력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위대한 정신력이 있을 때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고 시련은 사랑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철모른 어린애로만 여겨지던 에로스는 사랑의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어른다운 풍모를 지니게 된다. 육체적 사랑(Eroticism ; Erotic Love) 밖에 모르던 에로스는 정신력(Psychic Power ; Psyche's Influence)의 정화를 받고서 비로소 참다운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다. 프시케라는 그리스어는 원래 '나비'라는 의미와 '영혼'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단어로서, 영혼이 사랑이라는 변신과정을 거치면서 불멸의 생명력을 얻는 것은 마치 나비가 하늘을 나는 기쁨이 있기까지 겪는 오랜 변신과정과 유사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애욕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정신적 사랑의 여신 프시케는 세상 어떤 여성의 마음에도 다소간에 존재하는 사랑의 욕구들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서 여성적인 사랑의 의미를 구현시키는 주인공들로 는 이같은 사랑의 여신들 말고도 계절순환과 생식현상에 관련

된 이밖의 여신들이 적지 않다. 세계의 여러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듯이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도, 여성적인 사랑은 생명의 순환현상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애욕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지하세계의 여왕신 페르세포네가 미남 소년 아도니스(Adonis)의 사랑을 나누어 받는다는 애뜻한 러브 스토리는 계절순환에 따른 식물생장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아프로디테가 숲속을 걷던 중 나무등걸이 갈라지면서 사내 아기 아도니스가 태어나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아기를 데려다가 미소년으로 길러준 페르세포네가 사랑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이들 두 여신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지만, 결국 제우스신의 중재로 아도니스의 일년을 계절에 따라 2등분하여 봄과 여름은 사랑의 여신에게, 가을과 겨울은 죽음의 여신에게 맡기기로 한다. 죽었던 나무등걸에서 솟아난 미소년 아도니스는 봄이 되어 환생하는 식물의 생명력인즉, 아도니스의 사랑을 2등분하는 원리는, 세상의 생명체들이란 아프로디테적인 사랑의 힘으로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페르세포네적인 죽음의 운명을 맞는다는 대자연의 이치를 말해준다. 아프로디테의 情夫人 아레스신이 보낸 멧돼지에 물려서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한 아도니스의 몸에서 피어오른 피빛처럼 빨간 꽃이 아네모네인데, 이 꽃 이름은 그리스 말로 <바람>을 뜻한다고 한다. 바람결에 피었다가 바람결에 스러지는 허무한 꽃이 사랑이라는 의미이다.

사랑의 여신이 낳은 자손이 지상최대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야기는 사랑의 힘은 생명의 창조와 더불어 인간역사의 창조에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프로디테가 사랑한 트로이의 왕자 안키세스(Anchises)와 이들 사이의 아들 에네아스(Aeneas)는 나중에 세계의 지배자 로마를 건설한 로물루스(Romulus)의 원조이다. 아프로디테는 인간 신분인 안키세스와

의 정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여신의 신분이라는 것을 숨기고 구애하는 적극성까지 보여주는데, 신화적 사건으로써 인간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인간역사의 전개에 내재하는 초인간적인 힘의 존재를 믿으려는 당대인들의 신 관념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대지와 초목의 여신 데메테르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성의 모성적인 사랑이 갖는 생명창조적인 힘을 암시한다. 사랑하는 딸 페르세포네를 지하세계의 지배자 하데스에게 납치당해 상심하는 데메테르가 대지에 초목을 키우는 일을 잊어버리게 되자, 페르세포네의 일년을 전후로 2등분하여 봄과 여름에는 지상에 나와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가을과 겨울에는 지하에서 죽음의 여신이 되도록 한다는 제우스의 타협안은 죽음과 부활의 순환 원리를 암시한다. 아도니스의 사랑을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가 2등분하여 갖는다는 위에서 살펴본 이야기도 계절변화에 따른 삶과 죽음의 순환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야기의 경우는 생명 부활의 계기가 아프로디테적인 이성간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모성애의 힘이 생명부활을 가져온다는 데메테르 이야기의 경우와 구별된다 하겠다.

제주도 신화에서 성적인 사랑의 여신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랑의 사건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 신화에서 여신이 보여주는 사랑다운 사랑의 사건들은 <세경 본풀이>의 자청비 이야기에 나온다. 자청비가 문도령(문국성)과의 사랑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적극적인 구애 행위와 관능적 성애의 장면은 현대적인 자유연애주의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이다. 다만, 문도령의 아버지인 하늘 옥황 문선왕의 신임을 얻어야한다는 지상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행위에서는 정의감, 의협심, 용맹성 등 윤리적인 미덕들이 정면에 돋보인다는 점과, 어려운 난관을 이기고 선량한 공덕을 쌓은 대가로 나중에 인간

세계의 농경신으로 정좌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여성의 본능적인 사랑 행위의 측면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經世的 職能神으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대한 탓으로 사랑의 여신으로서의 이미지가 가려지고 있는 것이다.

자청비가 박애주의적인 생산력의 여신 및 본능적인 애육의 여신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 신화의 평화적 공존의 원리에 비추어 설명이 될 것 같다. 앞에서 본 대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애육의 여신과 생산력의 여신이 따로 존재한다. 그리스 신화에서의 이러한 직능분할 관계는, 아프로디테와 데메테르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 사이에서 이루지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아도니스를 둘러싼 사랑 다툼에서 보듯이 투쟁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로디테와 데메테르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생산과 애육의 두 가지 삶의 원리를 분리시켜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이들 두 가지 원리를 하나의 주인공 자청비를 통해서 구현시키는 제주 신화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원리가 하나의 동일한 인격체 안에서 구현된다 할 때, 양자 사이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적 공존의 관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자청비는, 제주도 여성의 전통적인 맹렬성을 보여줌인지, 연애 상대인 문도령 쪽을 훨씬 앞설 정도로 조숙한 애정욕구를 보여준다. 주천강 연화못에서 빨래하던 자청비가 글공부 가던 문도령을 만나 첫눈에 반하여 급히 남장으로 차려입고 같이 따라나설 때의 태도는 이성애에 대한 애정욕구의 발동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거문선생한테서 3년 동안 글공부할 때는 여성의 본능을 제법 잘 숨기던 자청비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는 문도령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 들인 다음 부모들 몰래 합

환주를 밤늦도록 마시면서 <삼년 눈속인 사랑>을 풀 때의 모습은 성적인 사랑 그 자체를 즐기는 연애지상주의자의 것일 뿐 도덕적인 의무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p. 160).

자청비가 하늘나라 문도령한테서 기별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능청꾸러기 하인 정수남이하고 별이는 유쾌한 사랑놀이도 애욕의 여신으로서의 그녀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정수남이의 피에 넘어간 자청비가 알몸으로 연못물에 들어간 다음에 들어서 나누는 선정적인 내용의 대화도 그렇거니와 두 사람이 바깥 들판에서 밤을 지낼 움막을 지을 때의 장면묘사 또한 매우 관능적이다. 움막에 돌담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것을 <정수남이는 막고 자청비는 빼는 사이에 밤이 다 됐다>고 하는 남녀간 교접행위의 은유적 표현 가운데에는 애욕의 여신으로서의 자청비의 면모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면적인 서술로는 돌담구멍 막는 작업이 정수남이의 버릇없는 실랑이를 모면하기 위해 꾸며낸 시간보내기 작전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한 의미를 사실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묘사는 자청비의 잠재적인 성애욕구를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두 남녀가 움막짓는 장면의 묘사는, 본능적인 애욕행위가 집을 짓는다는 생산행위와 결합됨을 보여줌으로써 애욕의 여신과 생산력의 여신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자청비의 이중적인 성격을 암시한다고 보아진다.⁶⁾

애정상대인 문도령이 몽매하고 굼뜬 사람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영특하고 용맹스러운 자청비는 남녀간 애정 표시에 있어서도 얌전하고 정숙한 요조숙녀의 면모보다는 호방하고 활달한 性開放主義者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 성개방적인 면모는 정수남

6) 고대경, pp. 138-9

이와의 관계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죽은 남편 문도령을 옆에 눕혀두고서 동네 청년 십여명을 방안으로 끌어들여 가짜 수제비 대접을 하여 놀라게 하는 장면도 그렇지만, 더욱 큰 상징적인 의미는 자청비가 죽은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이용하는 점에서 발견된다. 자청비는 동네 청년들의 해꼬지로 죽음을 당한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서천꽃밭 환생꽃을 따와야 하고 그 서천꽃밭에 들어가는 어려운 기회를 얻는 매개체로서는 부영이를 이용해야 하는데, 부영이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벌거벗은 알몸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⁷⁾ 정수남이 앞이나 부영이 앞에서 관능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자청비의 대담함은, 어디까지나 천생배필인 문도령과의 애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 신화의 애욕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무절제하게 혼외정사를 즐기는 것과는 다르다.

다음으로 흥미를 끄는 것은 생명순환의 주기에 관한 제주도 및 그리스 신화의 공통적인 모티프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리스 신화에서 계절순환에 따른 삶과 죽음의 교체현상은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가 1년을 전후반기로 갈라서 아도니스의 사랑을 나누어 받는 것과, 데메테르와 하데스가 페르세포네의 애정을 같은 식으로 나누는 것에 의해 재현되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이 제주 신화에도 나타나고 있다. 서천꽃밭 사라대왕의 막내딸과 전략적으로 맺어놓은 자청비의 암장가(雌娶) 인연을 뿌

7) “밤이 되자 자청비는 알몸에 흠이불을 두르고 꽃밭으로 나갔다. 이 불을 펼치고 꽃 사이에 알몸으로 누워 기다리노라니, 자시께가 되었을 까 부영새 한 마리가 날아와 자청비의 몸 위에 앉아 배꼽을 쪼았다. 자청비는 한 손으로 부영새를 잡아 화살로 귀를 찢러 죽이고 (서천)꽃밭에 던져두었다.” (고대경 p. 153)

리치지 못한 결과로, 자칭비 대신에 문도령이 서천꽃밭 처가살이까지 맡아서 함에 있어서 한 달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先보름은 사라대왕 막내딸과 살고 後보름은 인간세상에서 자칭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은 식물들의 생명의 주기적 순환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제주도 신화의 자칭비는 農耕術과 生産力의 여신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여신이기도 하다. 자칭비가 구현하는 사랑은 아프로디테적인 애욕일 경우도 있고 프시케적인 자기희생적 애정일 경우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사랑은 동일한 주인공 안에서 별다른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자칭비가 지니는 성적인 사랑의 여신으로서의 성격은, 문선왕이 내려주는 하늘나라 벼슬을 마다하고 제주땅으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오곡씨를 나누어주는 세경신(농경신)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 대지 및 죽음의 여신 페르세포네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생명부활의 화신인 아도니스를 두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투쟁 모티프는 제주 신화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제주 신화에 나타난 사랑의 원리는 위에서 살펴본 평화적 공존의 원리를 구현시키는 한 방법임을 확인하게 된다.

동일한 신화 주인공이 생산력의 여신과 사랑의 여신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 신화를 평화적 공존의 원리로 설명하는 일은 설문대할망 이야기에도 적용될 것 같다. 물론 설문대할망이 어떤 남자와 사랑을 즐긴다는 이야기 내용은 없지만, <가난한 여인 설문대는 속옷이 없어 제주 백성들에게 “속옷을 한 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마.”하고 약속>하고, <설문대하르방이 거대한 물건을 꺼내 바다를 휘휘 저으니 놀란 고기떼들이 - 다리를 벌리고 앉은 설문대할망의 下門 속

으로 들어가 잡혀 그 날의 요기꺼리가> 되고, <설문대할망이 오조리 식산봉과 성산리 일출봉에 양다리를 걸치고 앉아 오줌을 싸자 육지가 패이며 바닷물이 들어와 섬이 생겼다>고⁸⁾ 하는 내용들은 성적인 이미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필이면 제주 사람들에게 속옷 지어 올 것을 요구하고, 고기떼들이 하문 속으로 들어가며, 오줌을 싸서 섬을 만들겠다는가를 유추해보면 이 모든 모티프들이 애육의 여신의 성격을 구성한다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요컨대, 설문대할망은 창조의 여신과 생산력의 여신과 사랑의 여신이라는 다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성격들이 동일 주인공에게 융합되어 있음은 이들 다양한 성격들간에 평화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IV. 결론

신화가 그 민족의 원형적인 우주해석 방식이라는 명제는 물론 제한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신화가 형성된 시대와 현재의 시점 사이에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고 이 동안에 있었던 역사의 변천은 분명히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바꾸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주신화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祈福斥禍의 가정행사인 굿판에서 무당들에 의해 음송되는 사설이기 때문에 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인 사항보다는 지역발전과 가문번창에 관련된 사항이 주된 내용이라는 한계가 있다. 만약에

8) 고대경, p. 37

제주 신화가 그리스 신화의 경우에서처럼 일찍부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일반인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 발전되고 특히 유능한 문학창작가들의 손에서 그 의미 심화와 소재 확대의 과정을 거쳤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신화가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한 다음에도, 우리가 제주 신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확인적인 명제는 유효하다는 생각이다. 심방들의 입에서 전해 내려온 사실들은 바로 제주사람들의 역사의 소산이다. 제주 신화의 내용중에는 육지부에서도 전승되는 민간설화와 다각도에서 공통되는 요소들이 있음도 사실이지만, 한반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렇게 풍부한 무속신화가 전승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제주 신화의 의미해석에 고려해야할 사항일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유교적인 중앙집권세력의 침투가 비교적 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의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서 초월적인 신들의 존재를 끌어들었다는 점은 제주인 특유의 인간관에 어떻게든지 관련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더구나, 제주 신화에 자청비 같이 활발하고 개방적인 여성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女性像이 적극적이었던 점과 상통되고 있다.

제주 신화를 그리스 신화와 비교하는 일 또한 제주인의 삶의 실상을 확인하는 일에 일조가 되리라고 보아진다. 제우스신 같은 우주질서의 지배신보다 삼승할망 같은 출산신이 중요하고, 아프로디테 같이 자유주의적인 사랑의 신보다 자청비 같이 도덕주의적인 사랑의 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주도의 무속신화는 바로 제주인들의 과거의 실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과거 역사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변화하는 현재 속에서 미래의 역사창조를 위한 바탕으로 활용될 때 그 진

정한 값어치를 드러낸다. 오늘날 제주인의 삶은 폐쇄적인 가문 번창이나 자급자족적인 농경생활에 안주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화와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는 추세에 있다. 제주인의 삶의 양상이 바뀌어 한 가문의 일원으로서보다 세계인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며 더욱 자유롭고 진취적인 가치관이 정립될 때, 전래의 제주 신화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화의 단순한 소재나 중심적인 주인공들에게 분장되는 직능 여하는 생활구조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세대변화와 크게 관련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제주 신화의 모티프는 신들의 관계가 평화적 공존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하나의 작은 섬에서 동일 민족 내부의 평화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해야 했을 제주인의 역사가 제주 신화의 평화적인 모티프를 낳았고, 더구나 동일 집단이 한 곳에 오래 정착해야 하는 농경생활의 특성도 평화적인 공존상태를 지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 닥쳐올 세계화 시대에는 인구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다수 민족간의 투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니까 전통적인 평화지향성이 퇴조하게 될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제주 신화에 나타난 우주해석의 원리가 현실사회의 적용 원리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견해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에서 불가피했던 도시국가간의 충돌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리스 신화의 투쟁 모티프가 나왔지 않느냐는 해석과 결합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제주 신화의 문명사적인 의의를 찾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미래 개척의 올바른 방향설정에 있어서 과거의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때, 과거 역사의 소산으로서의 신화의 의의를 동서양 문명사의 맥락에서 찾아 볼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제주 신화의 평화 모티프와 그리스 신화의 투쟁 모티프를 각각 동양정신과 서양정신의 표출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투철한 역사의식 모색에 있어서 중대한 시사를 던져준다. 그리스 민족만이 아니라 서양인들의 역사는 원래, 거주지 이동이 심하고 이민족들간의 다툼이 빈번한 유목생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투쟁적인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렸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서양인들의 역사는 정치적 사상적인 혁명의 연속이었을 정도로 대립세력간의 갈등과 투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스적인 휴머니즘과 함께 서양정신의 양대 연원을 이루는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도 神性과 人間性은 영원히 대립되는 이질성을 지니는 것이며, 靈과 肉의 갈등, 천사와 악마의 싸움, 천국과 지옥의 대치 등 투쟁적인 대립관계가 교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는 현대 정신분석학의 원조 프로이드의 人性理論에 있어서도 성격의 3대 요소인 에고, 수퍼에고, 이드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하여, 동양적인 우주관은 평화적인 공존관계를 추구한다. 고대중국에서 발생한 周易思想은 陰陽二元間의 대립보다는 조화에 역점을 두는데,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 민족들의 기본적인 우주관은 바로 이러한 음양조화의 평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 및 가족의 도덕원리인 유교사상이든, 자연관 및 생명관의 원리인 도가사상이든, 음양간의 조화, 즉 평화적 공존의 상태가 이상적인 것임에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시점에서 동양인들의 급속한 서양화 추세는 宇宙秩序觀의 평화 모티프까지도 투쟁 모티프로 바뀌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인 현실문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석의 관점은 자유로운 인간의 선택 앞에서 넓게 열

려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민족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충돌을 투쟁의 논리로서만 대응한다는 것은 공동번영보다는 공동자멸의 길을 열어놓게 될 것도 분명한 일이다. 세계화의 추세에 대응하는 평화적 공존의 원리는 결코 시대역행적인 지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적 사명이 동양인 또는 제주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자에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행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주 신화의 의미 해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촉구된다 하겠다.@

"A Comparative Study of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and Love in Cheju and Greek Mythology"

Yang, Yeong-Soo

Dept. of English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Cheju and Greek mythologies by attaching 'peace motif' to the former and 'strife motif' to the latter. These two different kinds of motif make Cheju and Greek mythologies widely contrasting in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In Cheju mythology, the basic relationships between the heterogeneous elements within humanity are peaceful, unlike the violent strife in Greek mythology. The two son-gods of Chonjiwang, the creator god of Cheju mythology, agree to designate the ruler of the present and next world by way of a peaceful contest of growing flowers. Ko-eulla, Yang-eulla, and Pu-eulla, who are the three divine founders of the Tam-na Dynasty(the ancient state of Cheju Island), divide their territory among themselves quite peacefully, by shooting arrows in three different directions. The succession of ruling power in Greek mythology is always violent.

The principle of peaceful coexistence in Cheju mythology can also be seen in its ecstatic gods, who are eager to adapt their extraordinary and peculiar traits to the ordinary world which is generally represented by the Confucian tenets. In Greek mythology,

the ecstatic element (represented by Dionysus) is quite defiant and quarrelsome to the sober world. It is quite a usual practice in Cheju history that shamanistic and Confucian gods, the ancestral genii, were worshipped in the same place, while in Greek mythology the ecstatic element, Dionysus, and rational element, Apollo, are antagonistic to each other. Another instance of different principles of coexistence can be seen in the goddesses of love. In Greek mythology, Aphrodite, the goddess of amorous love, is antagonistic to Hera, the goddess of domestic love, while in Cheju mythology amorosity and domesticity are compatible within one goddess, Jachongbi.

In the case of Cheju mythology, the functional gods, as well as the human characters, are showing only a moralistic, humanitarian principle of love. This seems to be because these gods are originally elevated into their sacred status from humanity owing to their moralistic merits and their will to love and help men, which gives rise to the lack of the human reality in this mythology. Unlike classical Greek mythology, Cheju mythology has yet to be reconstructed and revitalized by the creative writers and artists of this district. @